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8.21.)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 등 논의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21일(월),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이동량이 많은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발표)」 관련 조치), ‘현 유행 상황 및 ‘주요 지표(확진자·사망자 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변화, ‘신규 변이 변수 등 고려 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과 2단계 조치는 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단기간의 추세 변화(지난 7주간 증가세 후 8.3주째 감소세 전환)에 더하여 향후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 후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범부처 감염병 재난대응을 통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검사비 등 국민지원 체계를 일부 유지하여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와 같이 ‘경계 단계’로 유지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 현재 시점에 위기단계 하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난 위기 단계 조정(6월) 후 체계 안정화가 필요하고,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전면 권고 전환’과 ‘현행 유지’ 모두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의료현장의 우려와 현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유지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방역 조치 조정과 체계 전환에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전문가로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	책임자	과 장	황호평 (043-719-7380)
		담당자	사무관	안제현 (043-719-7385)